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781.20	↑ 코스닥	1161.52
	(+17.98)		(+18.04)
↑ 금리 (연이자율)	3.410	↑ 환율 (원/달러)	1504.70
	(+0.081)		(+3.70)

편의점 매출
500% 급증
‘BTS노믹스’
02



‘추경’ 자칫 물가상승 역효과 우려

유가 폭등에 환율 1500원대 외국인, 이달 증시 16조 매도
韓 소비자 물가 상승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19일과 20일 연속으로 1500원 위에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좀 진정되는가 싶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세 자릿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6조 원어치 넘게 팔아 치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등과 외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도리어 물가 급등의 발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월20일 미달러화 대비 원화는 1448.0원 선이었고 중동 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68.50 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1배럴 들어오는 데 우리 돈 10만 원을 안 넘었다.

3월20일 기준으로는 환율이 1500.6원, 두바이유가 134.07달러에 달했다. 기름값을 원화로 환산할 시 배럴당 20만1185원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각각 106.41달러, 98.23달러로 마감했다.

이와 연동돼 각종 원자재·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역시 곧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생산품 가격 변동의 국내 전이는 시간 문제다.

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뒤 달러 및 자국화폐로 현금화하는 비중이 늘면서 원화 값 하락세가 심화했다.

이와 같이 고유가·외인매도·고환율 지표가 서로 얽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합동분향소 찾은 안전공업 임직원들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안전공업 임직원들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있다. /뉴스

李, 한은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내달 20일 만료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



문화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식 취임하게 된다.

이 수석은 신후보자에 대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

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서예진 기자 syj@



개인, 이달 22조 순매수... 수익률 -9% 불과

서학개미, 국장 복귀 움직임
매수 10개 종목 중 플러스 2개

중동 전쟁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에만 약 22조원어치를 매수했지만, 투자 성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 움직임은 본격화하는 추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41%였다.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외국인(-0.25%)이 담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부진한 성적이다. 외국인은 코스피 수익률(-7.41%)보다 앞섰다. 개인이 산 10개 종목 중

플러스(+수익률)를 기록한 종목은 2개에 불과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8조3610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달 들어 주가는 7.90% 내렸다. 두 번째로 많이 산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09%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2조8060억원에 달했다. 순매수 3, 4위인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23.29%, 18.00% 하락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두산에너지, 에이피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 대비 플러스(+수익률)를 기록해, 개인(2개)보다 양의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이 많았다.

부진한 성적에도 국내 증시를 향한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서 21조829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5년여 전인 2021년 1월의 역대 최대 순매수를 뛰어넘을 기세다. 올해 전체 순매수는 34조 7279억원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합치면 순매수액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9일 현재 115조원으로 50조원대 초반이었던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 움직임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6900만 달러(약 1033억원)에 그쳤다. 지난 1, 2월 만해도 각각 50억달러, 40억달러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커버스토리

고등교육 80% 사립대 담당 재정은 국공립 투입 ‘온도차’

국·공립대 형평성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국공립의 67% 수준 불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

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메트로 한줄뉴스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환영...특혜 의혹 진실 밝혀질 것” /사진 뉴스
-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軍 소장 가능

- ▲김 총리 이번주 ‘아시아 다보스’ 참석차 방중...정재계 핵심인사 교류
- ▲정청래, ‘자녀 돈봉투 수수 의혹’ 장세일 영광군 수 윤리감찰 지시

- ▲輿, 서울시장 후보 3인으로 추린다...본경선 티켓 잡기 치열
- ▲국힘 공관위 오늘 오세훈 면접...‘혁신 선대위’ 신경전 계속